

근로자 12.5% “최저임금 못받아” 업종 간 격차 ‘심화’

경총, 작년 최저임금 미만을 분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6.1만명
미만을 13년새 4.3→12.5% ‘급등’
‘고율 인상’ 탓…노동시장 수용성↓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22일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비교하면 무려 378.5% 급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1년 전과 비교해 1.2%p 하락했으나 지난 2001년 4.3%와 비교하면 8.2%p 증가했다.

경총은 미만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되며 물가의 5.8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최근 5년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및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사업체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 서비스업(22.8%) 등에서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고, 정보통신업(2.4%), 전문·과학·기술업(2.4%), 수도·하수·폐기업(1.8%)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p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격차는 최대 55.1%p까지 벌어진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92만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만율은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것이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간극도 더욱 넓어진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

면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 미만율이 높은 업종과 정보통신업(5.8%), 수도·하수·폐기업(5.7%) 등 미만율이 낮은 업종 간 격차는 최대 45.6%p 커진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p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p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나면서 미만율 격차가 40.1%p로 크게 확대된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경총, 회원사 800곳 돌파…대선공약 본격 건의

제83회 이사회·그린미팅 성료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가 800곳을 돌파했다.

광주경총은 11일 전라남도 나주시 해피니스컨트리클럽 다이아몬드홀에서 제83회 이사회 및 그린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82회 전기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신규 회원사(75곳) 가입 승인, 특별회계 예산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75곳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광주경총은 양진석 회장 취임 2년 만에 회원사 800곳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경총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지역 맞춤형 공약 발굴과 함께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광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

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미래 핵심 산업(AI, 모빌리티 등) 육성 및 투자 확대 △광주·전남 에너지 생태계 육성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개선 △광주·전남 상생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진석 회장은 “회원사 800개사 달성은 모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덕분에”이라며 “지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고 나아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건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상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중인 광주 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0일 회관 2강의실에서 ‘초보자를 위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제이엑스 관세법인의 송기영 관세사가 △FTA 개념 및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분야별 특례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실무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7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본 교육을 수료할 경우 기업은 인증수출자 점수 12점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인증수출자를 갱신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것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14일까지 팩

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교육 외에도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광주FTA통상진흥센터(062-350-5888)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제 1171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6	7	11	12	17	1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1억2834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2668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74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지난 9일 열린 기아위드 Green School 프로젝트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아 오토랜드광주 문제웅 공장장과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영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 제공

기아 오토랜드광주, ‘그린 스토리 프로젝트’ 후원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 8천만원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파”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민·관·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아위드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위드사업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역NGO단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올해 ‘기아위드 Green Story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속가능 광주만들기 2차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학생과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프로그램으로는 ‘환경탐사대’와 ‘그린마스터플래닛’이 운영된다.

환경탐사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5곳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물품 제작 체험을 통한 기후위기 인식 강화와 학교별 환경 실천 챌린지 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그린마스터플래닛은 광주지역 사회복지기관 8개소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 필요성에 대한 환경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간 연합활동을 후원한다.

또한 올해 기아위드에서는 지역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아위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이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환경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을 수료한 서포터즈는 지역사회

환경공동체를 구성해 기아위드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위드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은 지난 9일 기아 오토랜드광주 의 전관에서 진행됐으며, 문제웅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은 김영기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게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필수인 지금 기아위드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 Green Story 프로젝트가 지역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실천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영암 풀치터널 상행선 오늘부터 전면 차단

2개월간 비탈면 보강 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3호선 영암군 풀치터널 상행선 출구부 비탈면 보강 공사를 위해 상행선 2개 차로를 12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차단한다고 11일 밝혔다.

풀치터널 상행선(강진→영암) 2개 차로를 차단하고, 중앙분리대 절개 후 하행선(영암→강진) 중 1개 차로를 상행선으로 임시 사용할 예정이다.

비탈면 보강공사는 작년 9월 집중 호우로 터널 출구부 비탈면이 유실돼 락볼트, 슛크리트 등 시공을 위한 것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인성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로보트 신호, LED 표지판, 원카호스, 유도차선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